



26일 오전 전남대 교정에서 졸업생이 학사복을 입고 기념 사진을 찍고 있다. 전남대는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하계 학위수여식을 취소하는 대신 학사복을 대여해 졸업사진을 촬영할 수 있도록 했다. /최현배 기자choi@kwangju.co.kr

# 코로나에 사라진 졸업식 졸업장만 챙겨서 갑니다

코로나19가 종식되지 않고 이어지면서 '땀빠진' 대학 졸업식 풍경도 달라지지 않고 있다. 비대면 방식으로 학위수여식 행사를 진행하고 학사복·학사모를 대여해주던 지난해와 달리, 올해는 이마저도 사라지면서 졸업식 풍경은 예년보다 더 쓸쓸해졌다는 반응이다.

26일 오전 찾은 광주시 북구 용봉동 전남대 경영대학 1호관 앞은 후기 학위수여식이 예정됐음에도 학사복을 입은 학생들을 찾아보기가 쉽지 않았다.

방학 중인 캠퍼스 안은 다른 날과 별반 다르지 않았고 학사복을 빌려입고 친구들과 석별의 정을 나누는 졸업생들이 드문드문 눈에 띄는 정도였다.

동생과 함께 학교를 찾은 경영학부 졸업생 A(여·24)씨는 "학위수여식이 취소됐고 공식행사도 없어 오지 않으려다 평생 한번 있는 졸업식인데, 학사복은 입어봐야 할 것 같아 왔다"며 "졸업식인데, 학교가 너무 한산해서 아쉽기만 하다"고 말했다. 경영학부의 경우 전체 졸업대상자 131명 가운데 60명 만이 학교를 찾아 졸업증서를 받아 돌아갔다.

코로나19 4차 대유행 우려로 방역 조치가 한층 강화되면서 졸업식 풍경은 훨씬 더 쓸쓸해졌다.

전남대 행사 없이 졸업증서만 경영학부 131명 중 60명 찾아가 학사복 입고 기념사진으로 위안 취업 한파에 우울함 더해  
조선대는 올해 학사복 대여 안해 화훼상인들 졸업식 특수도 옛말

전남대는 학위수여식 행사를 취소했다. 대신, 미리 찍어둔 학위수여식 행사 동영상을 올렸다. 졸업증서는 25일부터 27일까지 각 학과 사무실에서 찾아가도록 했다. 학교측은 그나마 지난해와 달리 학사복을 빌려주면서 섭섭해하는 학생들을 달랬다.

영어영문학과 17학년 졸업생 B(여·24)씨는 "작년엔 학사복 대여도 안했는데, 그나마 다행"이라며 "오랜만에 동기를 얼굴을 보고 싶었는데, 취업을 했던 하지 않았던 졸업식이 온다는 친구들이 그리 많지 않다"고 말했다.

조선대는 27일 예정된 후기 학위수여식 행사를 취소하는 한편, 학사복 대여도 하지 않기로 했다.

코로나로 인한 취업 한파도 졸업하는 학생들의 얼굴을 어둡게 하고 있다.

26일 대학알리미에 따르면 전남대 졸업생 취업률은 2019년도 60.8%에서 지난해 60.1%로 감소했다. 올해는 대기업 공채도 예년보다 많지 않아 취업률이 더 낮아질 것이라는 게 학생들 얘기다.

졸업식 시즌이던 대목 장사를 노렸던 상인들 표정도 밝지 않다.

화훼상인, 사진사들, 대학가 인근 상가 상인들의 한숨소리는 여전하다. 이날 만난 한 화훼상인은 "예전 매출의 10%도 못될 것"이라고 했다. 대학 캠퍼스에서 만난 사진사 C씨는 "오늘 손님도 단 한명도 받지 못했다. 지난해부터 정말 힘들다"고 푸념했다.

가족 단위 손님들로 북적이던 대학교 인근 식당가도 손님을 찾아보기 힘들었다.

문행우 전남대 후문 상가변영회장은 "말만 졸업식일 뿐 졸업식 특수를 기대하는 상인들은 한명도 없을 것"이라며 "전남대 일대 상권은 코로나로 공실률이 30%까지 치솟는 등 다들 벅잡 끝으로 내몰린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 '광주 학폭 사망' 가해학생 11명 중 4명 퇴학·전학 처분

7명은 출석정지·봉사 등 징계

광주시교육청이 지난 6월 학교폭력으로 고통을 겪다 극단적 선택을 한 고교생 <광주일보 7월 5일 6면>과 관련, 해당 가해 학생들 11명에게 퇴학·전학 등 중징계 처분을 통보했다.

26일 광주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광주서부교육지원청(이하 서부교육청)은 학교폭력심의위원회 의견을 반영해 가해 학생 11명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 통보했다.

서부교육청은 '학교폭력예방법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찰 수사로 구속된 학생 2명에게는 '퇴학' 처분을 내렸고 나머지 학생들에게도 가담 정도·범행 횟수 등을 고려해 전학(2명), 출석정지 5일(1명), 사회 봉사(1명), 학교봉사(4명) 등의 징계

처분을 했다. 학교폭력 심의위는 11명의 학생 중 1명의 학생에 대해만 '혐의없음' 판단을 내렸다.

퇴학 처분을 받은 학생들은 피해 학생에게 수차례 폭력을 행사하는가 하면, 언어폭력, 추행 등을 저질렀고 특정 행위를 강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학 결정을 받은 학생들도 피해 학생을 위협하거나 강요하고 물리적 폭력을 행사하는 한편, 피해 학생을 촬영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광주지검은 학교폭력으로 고통받다 극단적 선택을 한 A군을 지속적으로 괴롭힌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상 공동상해 등)로 학생 11명에 대한 서류를 경찰에서 넘겨받아 조사를 진행 중이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 광주시의원 항소심서 선거법 위반 혐의 인정

선거 앞두고 주민에 식사 제공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지역 주민들에게 식사를 제공하고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광주시의원 항소심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경호 광주시의회 의원은 이날 광주고법 형사 1부 심리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항소심 공판에서 1심과 달리, 혐의를 인정하고 선처를 호소했다.

이 의원은 총선을 앞두고 지난해 4월 3일 오후 광주시 북구 두 소밭갈비집에서 교회 2곳 신도 등 18명에게 41만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당시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광주 북갑 후보의 선거사무원으로 활동한 이 의원이 조 후보를 소개하기 위해 교회 모임에 참석했고 업무추진 카드로 식대를 먼저 결제하는 등 기부행위를 했다고 판단했다.

이 의원은 1심 과정에서 검찰의 공소 사실을 전면 부인한 바 있다. 이 의원은 당시 다른 일정이 있는 상태에서 교회 측이 주최한 교회 신도들 모임에 잠시 인사하기 위해 들렀을 뿐 기부행위 목적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식사비의 경우 해당 식당에서 장기간 선 결제를 해왔는데 잘못 처리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1심 재판부는 그러나 이 의원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유죄로 판단,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선출직 공직자는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죄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이 의원은 항소심에서 1심 주장을 철회하고 혐의를 모두 인정하면서 '1심 형(刑)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검찰은 '형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다. 이 의원에 대한 항소심 선고는 오는 10월 7일 열린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 사건 무마 돈 받아 파면 경찰 항소심도 징역형

원심대로 집행유예 2년

사건을 무마해주는 대가로 금품을 받아 파면된 경찰관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집행유예)을 선고 받았다.

광주고법 형사 1부는 26일 수뢰 후 부정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전 광주동부경찰서 소속 경찰관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대로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그대로 유지했다. A씨는 1심에서 벌금 500만원과 추징금 250만원,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함께 명령받았다.

A씨에게 돈을 주고 사건 무마를 청탁한 혐의(뇌

물공여 등)로 기소된 동전노래방 운영자이자 전 공기업 직원 B씨도 원심과 같은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A씨는 노래방에서 발생한 절도 사건을 무마해주는 대가로 지난해 5월과 7월 두 차례에 걸쳐 현금 250만원을 받고 사건을 내사결정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사건 무마를 청탁한 대가로 돈을 주고받아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어린 자녀들을 양육하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원심 형량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평생어부바 **광주문화신협**

# 행복이벤트

**응모기간** 2021년 3월 8일 - 12월 31일 **추첨** 2022년 정기총회(22년 1월 예정) **행사대상** 신규 및 기존 거래자  
**응모방법** 유니온 정기적금개설, 체크카드20만원 이상 이용, 출자금자동이체, 신탁 공제가입, 공과금자동이체 및 계좌이동제, 신탁계후카드발급, 사업자 결제계좌, 연금자동이체, 사회적 예탁금 등  
\* 중복응모가능, 동일 항목당 최대 2매까지(응모방식은 창구방문)

**파워정기예탁금 I형, II형**

**12개월 연 1.7%** 세전 / 만기해지

**18개월 연 1.77%** 세전 / 만기해지

**2020년도 출자금 배당률**

## 2.97%

출자금은 예금지보금대상외 아니고 조합 경영상 손실이 발생할 경우 원금손실의 가능성이 있으며, 출자금 배당률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1)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기 전 '금융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신 후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2) 이 금융상품을 계약 하시는 경우 상품에 관한 중요사항을 설명 받으실 수 있습니다.  
 3) 예탁금 및 저금은 신탁법에 따라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5천만원까지 보호됩니다.  
 4) 조합 등 예탁금에 대한 저율과세, 비과세증빙서류 가능합니다.  
 5) 만기일 전에 중도해지 시 약정금리보다 낮은 중도해지 금리가 적용됩니다.  
 6) 금융상품 관련 상담 및 자세한 내용은 광주문화신협 영업점 및 아래의 전화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등 바디프랜드 안마의자 1명	2등 LG퓨리케어 공기청정기 2명	3등 제주도 2박3일 숙박이용권 5명	4등 키친아트 에어프라이어 15명
5등 테팔 세프드프랑스 프라이팬 100명			

\* 제세공과금(22%)은 당 신탁이 부담하며, 경품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광주문화신협영업점 및 홈페이지 등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흥본점 (광주 북구 문흥로 38) <b>266-4150</b>	양산지점 (북구 양산로 55) <b>573-4150</b>	운암지점 (북구 북문대로 88) <b>528-4150</b>	동림지점 (북구 북문대로 238) <b>513-4150</b>
매곡지점 (북구 설죽로 315번길) <b>572-4150</b>	침단지점 (북구 침단신로 91번길2-1) <b>576-4150</b>	동광주지점 (북구 동문대로 187) <b>264-4150</b>	각화지점 (북구 동문대로 283, 285) <b>263-4150</b>

**평생어부바  
광주문화신협**

신협중앙회심의회제2021-6호(2021.05.28), 유효기간 2021.12.31까지